크림반도 인접 러시아 본토 연일 포화

"벨고로드주 나흘째 포격"
"대반격 앞두고 우크라 공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본토 서부와 서남부 지역이 연일 공격받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멀지 않은 크라스노다르주 아핍스키 지역의 정유공장이 이날 드론(무인기) 공격을 받아 불탔다.

베니아민 콘드라티예프 크라스노다르주 주지사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아핍스키 정유공장 구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중유 운송을 위한 1개 시설이 불탔다. 화재 원인은 무인기 공격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전했다. 화재는 곧바로 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콘드라티예프 주지사는 덧붙였다.

누가 드론 공격을 감행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그동안 잦은 자국 본토 공격 배후로 우크라이나군을 지목해 왔다.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에너지 시설은 앞서 이달 초에도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와 접경한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은 나흘째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벨고로드주 주지사 바체슬라프 글라트코프는 31일 관내 셰베키노 마을이 포격을 받아 주민 1명이 부상하고, 주택과 자동차가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셰베키노 마을은 앞서 28일부터 연이틀 우크라이나군의 동시다발적인 포격을 받아 마을 내 산업시설 2곳이 부서지는 한편, 주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30일에는 역시 벨고로드주 내 난민수용소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아 경비원 1명이 숨지고 주민 2명이 부상했다고 글라트코프 주지사가 전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난민 수용소에 포격을 가했다"면서 "수용소에 3발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주거동과 행정동 건물의 지붕이 뚫리고 창문이 부서졌다"고 설명했다. 이 수용소에는 지난해 5월 전란을 피해 이주해온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벨고로드와 크라스노다르 지역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그간 예고해온 대반격 작전을 앞두고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北 우주발사체 발사' 비상 걸린 日항공자위대 기지 일본 정부는 지난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오키나와현에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해제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11일 사이에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항공자위대 보조기지의 모습. /연합뉴스

무인기 30대 모스크바 공습
'수도 뚫린 러' 허 찔린 푸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무인기 공습이 우크라이나전의 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깊숙한 본토, 집중적인 보호를 받아 안전지역으로 여겨지던 부촌에 대규모 도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주거지를 겨냥한 공습에 가담한 무인기가 8대라고 주장한다. 현지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공습에 나선 무인기가 훨씬 많은 30대 정도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일단 공습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피해 규모를 둘째치고 무인기가 무더기로 수도 상공에 침투한 경위를 두고 러시아 내에서 논란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격이 추가 동원령이나 애국심 고취를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후속 선동이 각본이 있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우크라이나군 등 외부세력이 배후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미국 시사지 뉴스위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공습의 이 같은 성격 때문에 분기점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푸틴 정권이 파급력을 우려해 세심하게 관리해오던 리스크가 갑자기 현실화해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의 배후라면 이번 공습은 러시아 내부의 분란과 반발을 일으키기 위한 심리전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본토 공습이 대반격을 앞둔 여건조성 작전이면서 심리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쟁과 동떨어진 곳에서 '특별군사작전'(러시아가 자국에 강요하는 우크라이나전 명칭)을 어렴풋이 지켜보는 부유층에 전쟁 충격을 체감하게 하려고 섬세하게 표적을 설정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실종자 5명' 美 아이오와 아파트 붕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대븐포트의 6층짜리 아파트가 일부 붕괴해 있다. 대븐포트 시장은 지난 28일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현재 5명이 행방불명 상태"라면서 "이 가운데 최소 2명은 잔햇더미 속에 깔려있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美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운영위 통과

7 대 6 가결…"첫 장애물 넘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미 하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는 30일(이하 현지시간) 합의안을 7 대 6으로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모두 13명인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소속 9명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가까스로 통과됐다.

관례대로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의원 중에는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칩 로이(텍사스) 2명이 반대했다.

때때로 프리덤 코커스와 행동을 같이하는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반대에 가세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찬성표를 던진 것이 통과에 결정적이었다.

블룸버그는 31일(현지시간) 저녁으로 예정된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결정적인 초기 장애물을 넘은 것이라고, AFP통신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다고 각각 평가했다. /연합뉴스

룰라 대통령 "이념분열 끝내고 통합하자"

남미정상회의 브라질서 개최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지역에 있는 12개국의 정상 및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남미정상회의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이타마라치궁전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의 대통령과 페루의 각료회의 의장이 참석했다.

정치 위기를 겪고 있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회의에 불참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막식에서 이념을 초월한 남미 국가 간의 통합을 호소했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이념이 우리를 분열시키도록 방치했다"면서 "공동의 비전을 재정의하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분열을 끝내고 재통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남미국가연합(Unasur) 및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와 같은 지역 통합 기구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회의는 보건, 기후변화, 국방, 초국가적 범죄 퇴치, 인프라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남미 협력 의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지도자들 간에 솔직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브라질 외교부는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남미 국가 간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미 공동 통화 도입 문제 등 10가지 주제를 제안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참석으로, 회의에서 일부 정상간에는 베네수엘라 문제를 놓고 이견도 노출됐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신만의 네러티브를 구축한다면 사람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이에 루이스 알베르토 라캬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러티브라고 표현한 데에 놀랐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유엔 지도 '일본해' 단독 표기에 서경덕 "동해 병기" 촉구

국제기구 유엔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동해'(East Sea)가 아니라 '일본해'(Sea of Japan)로 계속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31일 재차 시정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바다의 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해에 관한 영문자료와 함께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한국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3개국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는 1977년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물에 대해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각각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부분을 부각해 동해 병기 표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해 병기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유엔이 정한 국제원칙을 스스로가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메일에서 세계적인 유력 매체와 지도 제작사 등이 동해 병기를 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가 공동 표기 법안을 선포했고, 뉴욕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병기 표기를 확정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해외 언론과 뉴욕 타임스퀘어 등 유명 관광지 전광판을 통해 동해 광고를 꾸준히 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